

이야기꽃 그림책 신문

제1호 - 《민들레는 민들레》 편

펴낸 날 2017년 7월 7일 | 펴낸 곳 이야기꽃출판사 · 서울 마포구 연남로13길 17 | 마케팅부 070-8797-1657 | 편집부 070-8797-1656 | 전송 02-6499-1657 | 이메일 iyagikot@naver.com



싹이 터도, 잎이 나도, 꽃이 피어도,
혼자여도, 둘이어도, 여럿이어도
민들레는 민들레입니다.
길가에서도, 들판에서도, 지붕 위에서도,
꽃이 저도, 씨가 맺혀도, 바람에 날아가도
민들레는 민들레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인 것처럼

꽃꽃한 꽃 민들레가 온 몸으로 전하는 이야기



김장성 글, 오현경 그림 | 값 10000원

봄마다 꽃 잔치 벌어집니다. 목련이며 매화, 벚꽃 피었다 지고, 개나리, 진달래, 철쭉꽃 만발하지요. 사람들이 키 큰 나무꽃들에 취했다 깨는 사이, 낮은 곳에는 노란 민들레가 피어납니다.

성미 급한 녀석들은 어느 틈에 하얀 씨앗을 훌훌 날리고 있습니다.

도시 밖 멀리 인적 드문 곳을 찾아가면 키 작은 토종 민들레도 희고 노란 꽃을 드문드문 피워내지만, 요즘은 서양민들레가 그냥 민들레가 되어 버렸습니다. 위낙 번식이 왕성해 도시 주변을 온통 점령한 탓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것들도 이미 우리 자연의 일부가 되었으니 마냥 싫어할 일만은 아닙니다.

민들레는 여기저기 피어납니다. 큰 도롯가 비탈에도,

가로수 아래에도, 담장 밑, 낮은 기와지붕 위,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 틈새에도 조금이라도 흙만 있다면 민들레는 싹 틔우고 잎 내고 노란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초록 잎 노란 꽃을 피워 낼, 가볍디가벼운 씨앗을 뱉어 바람에 훨훨 날려 보냅니다. 그 모양이 마치 어디서든 나는 민들레라고, 어딜 가든 노란 꽃을 피울 거라고, 언제까지나 민들레로 살아남을 거라고, 가냘픈 몸이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주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민들레가 사뭇 대견합니다. 아니, 대단합니다. 어쩌면 그 작지만 야무진 생명이, 어른이든 아이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고단한 삶을 사느라 개성과 자존을 종종 놓치곤 하는 사람들보다 한 수 위인 듯합니다. 문득 깨닫습니다. 그래, **언제든 어디서든 민들레는 민들레인 것처럼**, 언제든 어디서든 나는 내가 아닌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내가 나를 버릴 수는 없지. 내가 바로 민들레니까!

이 책은 그런 민들레들의 노래입니다. 민들레 같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누가 뭐래도 나는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나이며, 저마다 누가 뭐라지 못할 자기 자신이니, 나를, 나의 나다움을, 저마다의 저다움을 지키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낮지만 또렷하게 외치는 작은 생명들의 노래입니다.

민들레는 아마도 가장 흔하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예쁜 꽃입니다. 게다가 피고 지고 다시 싹틔우는 생명의 순환을 거의 동시에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독자들에게 민들레의 한살이를 보여주는 생태 그림책이 적지 않습니다. 이 책도 민들레의 한살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민들레가 온몸으로 전하는 또 다른 이야기도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다움을 지키자는 이야기, 자신을 존중하자는 이야기, 그래서 **다 같이 꽃꽃하게 살자는 이야기**.

선생님이 숙제를 내 주셨어요 '아빠 얼굴 그리기'
눈, 코, 입, 귀, 머리카락..... 자세히 관찰하고 열심히 그려요.
드디어 완성! 그런데 어쩐지 아빠 같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무언가 빠뜨린 것 같은데,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아빠 얼굴을 그리면서, 파랑이는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파랑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그리면서요.

아빠 얼굴 황K 지음 | 값 12000원



《민들레는 민들레》,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이 시적인 그림책은, 씨앗에서부터 바람에 흩날려 날리기까지 민들레의 한 생애를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 여백을 잘 살린 섬세한 수채화와 최소한으로 절제된 간결한 글은, 도시에 사는 한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힘주어 말함으로써 작고 약한 생명들이 삭막한 환경을 곳곳이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평범한 것들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_《민들레는 민들레》 심사평

그림책 《민들레는 민들레》가 2015 볼로냐 라가치상 논픽션 스페셜멘션을 받았습니다. 라가치상은 세계 최대의 어린이도서전인 볼로냐 국제 어린이도서전

이 제정하여 2015년에 50회를 맞았습니다. 전세계 출판사들이 출판한 천수백여 종의 그림책 중에서 본상 4개 부문, 특별상 1~2개 부문을 합쳐 모두 20종 정도를 가려 뽑는데,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민들레는 민들레》 외에 《위를 봐요!》, 《담》, 《떼루떼루》, 《나의 작은 인형상자》, 《세상에서 제일 큰 케이크》 등 6종이 상을 받아 한국 그림책의 수준을 증명했습니다.

인터뷰_ 그린이 오현경 작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그릴 거예요.”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조금 얼떨떨하기도 하고 신기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판한지도 몰랐거든요(웃음). 어느 날 갑자기 축하한다고 연락이 와서 정말 깜짝 놀랐죠.

첫 작품이라서 이번 수상이 더 남다르게 느껴지겠어요.
네. 누구에게나 ‘처음’은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수상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작품이에요. 제가 미술을 늦게 시작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게 늘 후회스러워서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결혼 후에 여유가 생기면 미술을 꼭 배우고 싶다고요.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 시부모님도 제가 미술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에 이런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그림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셋째 아이를 낳은 후에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교(HILLS)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전혀 미술 공부를 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포트폴리오도 없었죠. 그래도 일단 지원했어요. 물론 떨어졌구요(웃음). 불합격 통보 메일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의의가 있을 경우 찾아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가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2년 동안 열심히 다니고 졸업 작품으로 준비한 게 이 그림이었어요.

《민들레는 민들레》의 글과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사실 글을 쓴 김장성 작가는 제 교수님이기도 한데요.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신기하게도 글을 받자마자 장면들이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조그만 꽃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저에게 민들레에 관한 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웃음). 글을 보자마자 장면들이 떠올랐고 지금 책에 실린 그림들이 거의 다 처음 떠올린 장면 그대로예요.

이 책에 실린 그림들은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그린 건가요?

일단 민들레꽃을 예쁘게 잘 그려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민들레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노란색이 화려하기도 하고요. 그 느낌을 잘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도감을 찾아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핀 민들레꽃을 찾아다니기도 했죠.

연필과 수채화로 작업을 하셨죠.

제 그림이 사실적인 스타일이라서 그게 잘 맞더라고요. 세밀하게 그리려면 아무래도 연필이 좋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저한테는 연필과 펜이 제일 잘 맞았어요. 수채화도 색이 열게 들어가서 좋고요.

모든 장면이 그렇겠지만 책 속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장면을 꼽자면요?

세밀하게 그리려다 보니 모두 사진자료가 필요했어요. 그 중에 김장성 작가가 자유로를 지나다가 직접 찍은 사진(4면 참조)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셨다고 해요. 이 책의 시작이 된 장면이라 의미가 남다른 장면이에요.

그림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때는 막연하게 ‘뭐가 됐든 그림을 그리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고등학교 진학할 때가 되니 꿈보다는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미술을 배우려면 당장 학원에 다닐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실업계로 진학을 했는데 많이 후회했어요. 좀 힘들더라도 미술을 배울 걸 그랬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늦게 시작한 만큼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죠. 수업시간마다 엄청 긴장했어요. 선 하나 그려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른 친구들 대부분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거나 그림을 계속 그려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물론 재미와는 별개로 여전히 어렵긴 했어요. 처음 몇 달은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갈 때쯤에야 “잘했다”고 칭찬해주셨죠. 그제야 자신감을 얻었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고요.

작가이기 전에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민들레는 민들레》를 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제가 넷째를 낳았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늘 민들레꽃을 찾아서 사진도 찍고 관찰도 하곤 했어요. 그 때문인지 넷째 아이는

민들레꽃을 보면 “엄마꽃이다!” 라고 해요(웃음).

엄마로서 그림책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요?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고르려고 하죠. 좋은 작품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잘 알아봐요. 확실히 명작으로 인정받은 작품들은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어른들이 보는 관점과는 다른가요?

좀 다르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림책을 읽는 다기보다 듣고, 보잖아요. 어른들이 읽어 주고 아이들은 그걸 들으면서 장면을 보니까요. 그 말은 어른들이 글자를 보고 있을 때 아이들은 그림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치는 작은 것들을 아이들은 다 찾아내요. 이 책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걸 찾아보는 것도 책을 읽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준비 중인 작품이 있다면 간단한 소개 부탁 드려요.

‘오늘이’이라는 제주도 신화 그림책인데요. 저희 셋째 아이가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해서 다음 작품으로 지정해줬어요(웃음). 제 그림 스타일과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고, 작업 과정도 힘들겠지만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신화라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욕심을 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로마신화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신화는 잘 모르잖아요. 조사는 거의 끝났고 스토리를 구성하면서 그림 작업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 욕심이 너무 커서 그런지 마음에 안 들어서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웃음).

앞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은요?

작가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기 마련인데 저 같은 경우는 생태계에 워낙 관심이 많아요. 평소에도 관련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고요. 생태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2015년 3월 10일자 인터파크 북디비 강서현 기자의 인터뷰 기사를 옮겼습니다.



2017년엔 《이빨 사냥꾼》도 라가치상 수상

한편, 이야기꽃출판사는 2017년에도 조원희 작가의 《이빨 사냥꾼》이 픽션 부문 스페셜멘션 상을 받아, 한 해 걸러 라가치상을 받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힘차고 강렬한 그림으로 역지사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그림책은, 다른 동물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준다. 그림은 동물들에게 사냥된 어린아이를 보여준다. 그 배경에 인간이 사냥한 동물들의 이빨과 뿔 등이 있다. 이 책의 효과는 강력하다. 이 책은 ‘우리는 우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생명들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전혀 진부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렬한 이미지에 실어 전하고 있다.” _《이빨 사냥꾼》 심사평



2017년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
《이빨 사냥꾼》-조원희 지음

인터뷰_ 글쓴이 김장성 작가

“그림책은 독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라가치상 수상 소식을 접했을 때의 첫 느낌은 어떠셨나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출품은 했지만 기대하진 않았으니까요. 실은 이야기꽃의 다른 책들 - 《돼지 이야기》, 《수영장》, 《이빨 사냥꾼》 중에 수상작이 나올 거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주제가 묵직하고 플롯이 강한, 말하자면 ‘상 받을 만한’ 작품들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민들레는 민들레》는 조용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소녀 같은 작품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 매우 굳센 내면이랄까, 또는 따뜻한 자존과 위로의 이야기를 감추고 있는..... 그런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을 알아보았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했고요. ‘의원데?’하는 생각 다음으로 ‘민망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상 같은 것은 젊고 열정 넘치는 후배 작가들이 받아야 하는데..... 아, 물론 그림을 그린 오현경 작가가 그런 작가이지요.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민망하긴 하네요.

우리 그림책 6권이 수상했는데요, 출판사 대표로서 보시기에 우리 그림책의 저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아가기 참 힘든 나라입니다. 사회안전망의 구비 정도나 복지지수, 국민행복도 같은 여러 사회적 지표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강대국들 틈새에 끼어 있는 분단국가라는 국제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국가가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에 매우 인색한 문화적 조건도 그렇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조건이 개개인으로 하여금 역량을 극대화하게 만들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해석은 좀 서글프지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다든가 하는 자민족우월주의 같은 걸 신뢰하지 않아요. 뭐든 하면 극성스럽게 열심히 해야만 하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이 오히려 가장 큰 바탕이라 생각해요. 그러한 바탕 위에, 그림책과 일러스트레이션에 관련된 여러 교육기관이나 출판사들의 연륜과 역량이 쌓이고, 작가들의 모색과 실험이 더해져서 저력이라 할 만한 것이 형성된 것 아닐까요?

아이들에게 그림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사람들에게 그림책이 필요한 이유’로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그림책이 ‘그림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쉽고, 그러므로 어린이를 위한 것’이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 읽기가 쉬운가요? 어린이에게 맞춰서 그리거나 쓰면 쉽겠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림책은 그냥, 언어

와 이미지로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하나의 미디어이자 예술형식입니다.

그림책이든 문학이든 영화든 음악이든, 모든 예술이 인간에게 필요하지요. 예술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더 깊게, 더 풍성하게 해 주니까요. 물론 예술작품이기를 지향하지 않고 교육상품이나 유희상품으로 자기 좌표를 정하는 그림책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대로 필요하고 의미가 있지요. 인간에게는 정답도 기능도 필요하고 유희적 즐거움도 필요하니까요. 예술작품으로서 그림책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의 저편에 있을 겁니다.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던지고, 감각적 즐거움을 채워 주기보다는 스스로 ‘정답이 없는 대답’을 모색하는, 조금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안겨 주니까요. 그러나 그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고통스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지요? 그건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스스로 그림책을 통해 내면을 치유한 경험이 있나요?

그럼요. 뭐, 특별한 치유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제 처지와 상태에 어울리는 좋은 작품들은 늘 저를 위로하거나 저에게 용기를 주거나 저를 행복하게 하지요. 가령, 삶의 덧없음에 허탈해 할 때 헬메 하이네의 《코끼리 똥》이라는 작품을 읽고 그 덧없는 삶을 담담히 받아들이므로써 덧없음을 극복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든지, 애즈라 잭 키츠의 《내 친구 루이》를 읽으면서 주인공 피터의 친구에 대한 순수한 배려에 그래도 세상은 살만 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든지..... 작가들은 자기가 그림책을 쓰거나 그리면서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를 쓰면서도 스스로 많이 위로 받았어요. 어려운 세상, 살아 갈 용기도 얻고요.

그림책을 더욱 재미있게 보는 노하우가 있다면?

글쎄요..... 아무래도 해석하는 즐거움이 있지요. 그 작품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를 아는 것이 ‘이해’라면, 그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가를 읽어내는 것을 ‘해석’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말하자면 표면적 이야기 뒤에 숨은 이면의 이야기나 그 이야기가 내포하는 의미를 찾는달까요. 좋은 작품들은 잘 들여다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 단서찾기의 즐거움?

아빠들이 아이와 함께 읽으면 좋을 그림책 3권을 추천해주세요.

《안아 줘!》. 행복해져요. 정말 해맑은 주인공 아기 고

릴라, 엄마와 아이가 포근히 안고 안긴 행복한 동물들의 모습, 그걸 부러워하다가 마침내 엄마 품에 안긴 아기 고릴라의 세상을 다 얻은 표정, 그리고 모든 동물이 종의 다름을 막론하고 서로서로 열싸우는 감동적인 결말까지.....

《엄마의 초상화》. 그림책을 함께 읽는 나이의 아이라면 아직 어리겠지만, 그래도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아는 엄마와 진짜 그 자신인 엄마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 엄마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꿈을 꾸는지, 그림에도 엄마이기에 어떻게 양보하고 어떻게 희생하며 또 어떻게 모색하는지..... 아이는 엄마를 이해하고, 아빠는 아내를 이해하며, 나아가 자기 자신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라면을 먹을 때》. 내가 이렇게 아빠 품에 안겨 그림책을 읽을 때, 다른 곳의 다른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사람은 모두 서로 다르다는 것, 나아가 조건과 상황에 의해 힘들고 고통스러운 타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만큼 쉽고도 명료하면서 시적으로 이해시켜 주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라면 두 개 끓여서 나눠 먹으며 읽는다면 더 좋을 듯.

자신의 그림책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지, 하나의 단어로 정의 부탁드립니다.

“나의 그림책은 (독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다.”

*〈맘앤앙팡〉 2015년 8월호 김경민 기자의 인터뷰 기사 원문을 옮겼습니다.



2015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식장에서 - 왼쪽부터 오현경, 김장성 작가

이 한 권의 그림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찾길 한복판에 핀 민들레, 작고 낮은 그림책이 되다

2005년 4월의 어느 날 이른 오후, 김장성 작가는 뜻밖의 장소에서 민들레를 보았어요. 육중한 쇠덩이들이 바람을 일으키며 지나다니는 10차선 도로 중앙분리대 틈새, 흙먼지와 타이어 가루, 매운 배기가스의 분진이 모여 이루었을 한 줌 토양에 뿌리를 박고 노란 꽃송이를 피워 올린 한 무리 민들레예요. 자유로를 달리던 자동차에서였지요. 작가는 안쓰럽다가 미안하다가, 문득 고마웠어요. ‘나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이렇게 곳곳하게 꽃 피워 냈거든. 그러니 너도…….’ 위로의 몸짓인양도 싶고, 격려의 꽃다발인 듯도 싶었지요. 작가는 그 모습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 분리대 가에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풍경은 그의 마음속에서 노래가 되었어요. “민들레는 민들레, 여기서도 민들레, 저기서도 민들레, 이런 곳에서도, 민들레는 민들레…….” 자기 자신에게 불러주는 노래였어요. 어디 있어도 너는 너이니, 흔들리지 말고 너답게 살아라. 누가 뭐래도 너는 너이니, 그저 너답게만 살아라. “혼자여도 민들레, 둘이어도 민들레, 들판 가득 피어나도 민들레는 민들레…….” 외롭더라도 너는 너이니, 약해지지 말고 너답게 살아라. 무리를 이루어도 너는 너이니, 빠지지 말고 너답게 살아라.

오래지 않아 찾길가의 민들레는 하얀 씨가 되어 여기저기 훌훌 퍼져 갔어요. 작가도 나누고 싶었지요. 그 노래와 그 풍경을요. 작가가 몸담은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공동체의 오현경 그림 작가가 호응해 주었어요. 노래를 그림으로 옮기기로 한 거예요. 오현경은 맛벌이를 하면서 아이 셋을 낳아 키우는, 꼭 민들레 같은 여성 작가였어요.

처음엔 ‘이 땅에서 만드는 그림책이니 이 땅의 토종 민들레만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나 곧 마음을 바꾸었지요. ‘우리 것은 소중히 여겨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이 땅에 뿌리내린 귀화종을 배척해야 할까? 그렇다면 이 땅에 들어와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를 낳아 기르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결혼이민자들은 어찌해야 한단 말

인가?’ 뿌리 깊은 배타주의를 버리니, 토종민들레든 서양민들레든 모두 예쁜 꽃이었습니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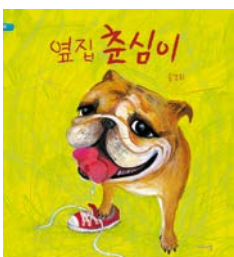
풀꽃의 한살이를 담는 일은 한 해를 담는 일이에요. 장면 구상을 하고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원화를 한번 그려 내니 꼬박 일 년이 지나갔어요. 오현경 작가는 젓먹이를 키우며 한 권 분량의 그림을 다 그렸지만, 못내 아쉬웠어요. 조금 더 나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요. 아기들을 돌보느라 두 해를 쉬 오 작가는 다시 그림을 그리며 넷째를 품었어요. 그 아이와 함께 또 한 벌의 그림을 그렸지요. 그림은 그 아이를 낳고 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이야기가 생명과 함께 자라 완성되었습니다. 이 작은 책 한 권에도 몇 해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었습니다. 하물며 한 사람이 자라는 일에 얼마나 많은 손길과 정성이 필요한가요. 그런데 이 책을 펴내려 할 즈음인 2014년 4월 16일, 초록 잎 같은 250여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300이 넘는 귀한 인간의 생명이 허무

하게 스러져 간 비참하고도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어른들의 잘못이요, 어른들이 만든 사회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글 작가도 그림 작가도 출판사도,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책을 내는 일조차 부끄럽고 미안하고, 분하고 참담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일상은 일상이라 스스로 위로하며 일주일 뒤 책을 냈습니다. 책에겐 미안하나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꽃이 저도 민들레, 씨가 맺혀도 민들레, 휘익 바람 불어, 하늘하늘 날아가도, 민들레는 민들레…….” 노래의 마지막 소절이에요. 너무나 많은 꽃들이 너무나 아파서 졌습니다. 졌으나마 그저, 더는 생존과 자손이 위태롭지 않은 좋은 세상에 다시 피어나길 만든 사람 모두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꽃들을 떠나 보낸 모든 이들에게 이 그림책이 작은 위로나마 전하게 되길 바랐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가 뭐래든 자기다움을 지키며 작고 낮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노란빛을 전하는 민들레처럼 말이지요.

◀ 글쓴이가 찍은 민들레 사진 ▶ 《민들레는 민들레》 본문 그림



옆집 춘심이
송경화 지음/ 값 10000원

못 생긴 놈! 나쁜 놈! 바보, 멍청이, 괴물 같은 녀석!
저런! 석우가 누군가를 마구 흉보고 있네요.
몸시 화가 났나 봐요.
그런데 누구에게 왜 화가 난 걸까요?



아이를 좋아하는 개 춘심씨와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 석우가 만났어요.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처를 받고, 상처가 커지고, 상처를 어루만져 상처가 아문 이야기.
한번 들어 보실래요? 《옆집 춘심씨》가 들려줄 거예요.



이야기꽃

민들레는 어떤 꽃?

슬픈 전설을 품은, 작지만 곱고도 꽃꽂한 들꽃

생태와 쓰임새

민들레는 양쪽에 커다란 톱니가 달린 깃 모양의 잎이 뿌리에서부터 사방으로 나고, 그 한가운데서 꽃줄기가 올라와 작은 국화 모양의 노란 꽃을 피우는 여러해살이풀이에요. 민들레의 꽃은 길쭉한 한 장의 꽃잎과 암술, 수술이 한 단위로 된 통꽃 여럿이 모여 한 송이를 이루는 ‘두상화’인데, 한 송이에 몇 십에서 백 몇 십여 개에 이르는 통꽃이 모여 있지요. 꽃가루받이가 이루어지면 각각의 통꽃은 흰색 깃털이 달린 우산 모양의 씨앗이 되어, 바람을 타고 날아가 다른 곳으로 퍼집니다.

우리나라에는 원래부터 살아온 토종 민들레와 유럽이 원산지인 서양민들레가 함께 살고 있어요. 토종 민들레에는 흰 꽃을 피우는 흰민들레, 노란 꽃을 피우는 ‘그냥’ 민들레, 산속 축축한 곳에서 잘 자라는 산민들레, 주로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좀민들레, 한라민들레, 탐라민들레 등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4~6월(탐라민들레는 3월)에 꽃을 피우고 벌과 나비 같은 곤충에 의해 꽃가루받이를 해요. 이에 비겨 서양민들레는 3~9월에 걸쳐 긴 기간 동안 꽃을 피우고 바람에 의해 꽃가루받이를 하므로 번식력이 왕성해서, 전국의 도시 곳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토종 민들레와 서양민들레는 꽃받침의 모양으로 쉽게 구별되는데, 서양민들레는 바깥쪽 꽃받침이 뒤로 젖혀지고 토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들레의 어린잎을 나물로 먹고, 꽃피기 전의 온 그루를 통째로 말려 약재로도 씁니다. 예전에 민간에서는 산모의 젖이 잘 안 나올 때 민들레를 달여 먹거나, 손등에 사마귀가 났을 때 민들레 꽃줄기를 자르면 나오는 하얀 수액을 바르기도 했지요. 서양에서는 잎을 샐러드로 먹으며, 뉴질랜드에서는 뿌리를 커피 대용으로도 쓴다고 합니다.



통꽃 여럿이 합쳐진 두상화



날날의 통꽃과 씨앗



토종 민들레(왼쪽)와 서양 민들레

엷힌 이야기들

하나_대홍수와 민들레

옛날 노아의 홍수 때 온 세상에 물이 차오르자 동물은 물론 꽃들까지 높은 곳으로 달아났는데, 민들레는 깊게 내린 뿌리가 빠지지 않아 달아나지 못했어요. 물이 점차 차오르자 민들레는 두려움에 떨다가 그만 머리가 하얗게 세어 버린 채, 하느님께 구해 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지요. 하느님은 민들레를 가엾게 여겨 하얗게 센 머리에 맺힌 씨앗을 바람에 날려 다른 곳에서 피어나게 해 주었대요. 민들레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_땅으로 떨어진 별들

하늘의 별들이 지워 준 운명 탓에 평생 딱 한 번 밖에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무기력한 나날을 살아가던 왕은, 어느 날 자신에게 그런 운명을 준 별들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왕은 하늘에 대고 자신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명령을 내렸지요. “별들은 모두 땅에 떨어져 꽃으로 피어나라! 내가 너희들을 밟아 주리라!” 그러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져 노란 민들레꽃으로 피어났고, 그 뒤로 왕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민들레꽃을 마구 밟고 다니게 되었다 합니다.

셋_기다리다 꽃이 된 민들레 처녀

옛날 어느 산골에 민들레라는 처녀가 부모 없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늙고 병든 할아버지는 자신이 죽은 뒤에 홀로 될 손녀를 걱정하여, 어서 짝을 찾아 혼인을 치러 주고 싶었어요. 마침 이웃 마을에 건장한 청년이 하나 있어, 혼담을 넣고 따듯한 봄날로 혼인 날짜까지 잡았지요. 할아버지는 들레에게 혼례복으로 노란 저고리 초록 치마를 해 입히고 혼례 치를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러나 갑자기 병이 악화되어 예쁜 손녀의 혼례식을 보지 못한 채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엷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 청년은 전쟁터로 끌려 갔지요. 들레는 노란 저고리 초록 치마를 입고 청년을 기다렸으나, 돌아온 것은 청년이 전사했다는 소식뿐이었어요. 들레는 할아버지의 무덤가에서 올라 지쳐 잠이 들었는데, 잠든 채 다시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 뒤 해마다 봄이 되면 그 자리에 초록잎 사이로 노란 꽃을 올린 민들레가 피어났답니다.

어린이가 함께 봐도 좋은 어른을 위한 그림책

2017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 작가
조원희가 들려주는 진짜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유쾌한 이야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작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커다란 어떤 것을 잃고 사는 건 아닐까요?
원형탈모증에 걸린 네모 씨가 중요한 문제를 풀어갑니다.
소중한 행복을 찾아갑니다.

중요한 문제
조원희 지음/ 값 12000원



그림책, 뒷이야기 1. 독자와 함께 완성하는 표지 이야기

표지는 책의 얼굴이에요. 얼굴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분은 어떤지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를 대강 말해 주듯, 표지는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말을 전하려 하는지를 대강 알려 주지요. 그래서 책을 만들 때는 표지에 공을 많이 들여요. 여러 가지 시안을 놓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로 정했다가 다시 바꾸기도 하지요.

《민들레는 민들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을 만든 이들은 여러 표지 시안 중에 1)과 2)를 놓고 고민했어요. 처음엔 1)로 정했었지요. 허름한 산동네에 사는 아이의 목소리로 이 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왠지 아쉬운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곰곰 생각해 보니, 지은이들의 의도를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내려 한 듯싶었어요. 이 책은 작고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민들레의 이야기로 은유한 것인데, 은유한 것을 다시 표면에 드러내는 건 빗대어 말하는 것을 들을 때의 은근한 느낌을 방해할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쇄를 앞두고 지금의 표지로 바꾸었지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뜻이 다르진 않지요. 하지만 독자 여러분이 새 표지의 깨진 컵 속 작은 민들레와 거기서 날아가는 씨앗들의 모습을 보고, 그 민들레를 키운 작은 아이의 소박한 모습과 깨끗한 마음

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책의 표지를 독자와 함께 완성하게 되는 것이니 더 뜻 깊을 수 있겠죠? 참, 그렇다고 이 책 속에서 시안 1)의 아이를 볼 수 없게 된 건 아니에요.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글썽요, 독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표지 시안 1(왼쪽)과 표지 시안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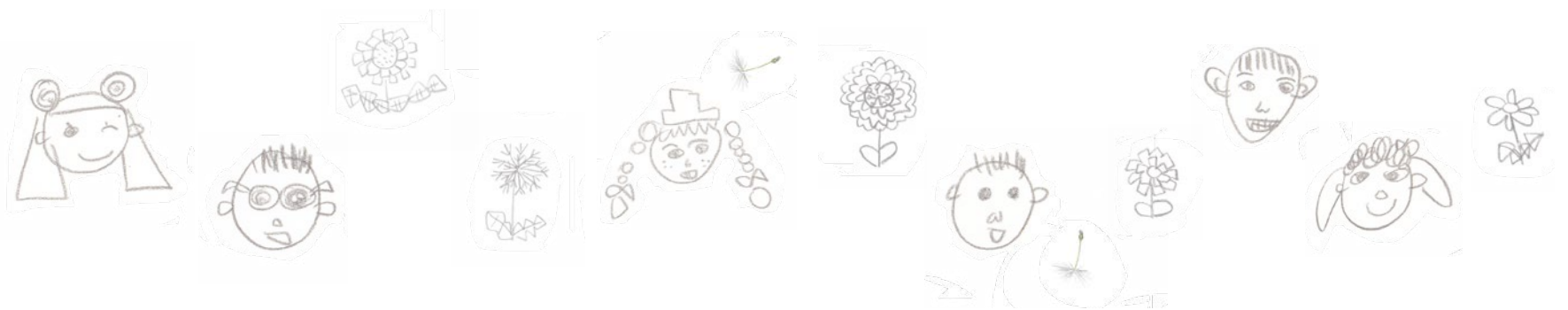


그림책, 뒷이야기 2. 아이들과 함께 만든 면지 이야기

이 책의 앞면지와 뒷면지를 유심히 보셨나요? 오래된 담벼락에 아이들의 낙서처럼 그려진 그림들이 있어요. 앞면지에는 아이들 얼굴이, 뒷면지에는 민들레가 그려져 있지요. 모두 실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바로, 그림을 그린 오현경 작가의 자녀들이 그린 그림이지요. 작가의 어린 자녀들은 작가가 이

책의 그림을 그리는 동안, 다 그려 놓은 그림에 낙서를 하거나 우유를 흘려 엄마를 힘들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 장 두 장 그림들을 완성해 가는 동안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 이 면지들을 만들 땐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림을 그려 엄마를 도와주기도 했지요. 앞면지에서 개구쟁이 아이들의 얼굴이 있는

그 자리에, 뒷면지에서는 갖가지 모습의 민들레꽃들이 그려져 있어요. 만드네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공책에 여러분의 얼굴과 민들레꽃을 한번 그려 보시겠어요? 그러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림책, 뒷이야기 3. 그림책 속에 숨은 그림들

이 책 속에는 주인공인 민들레 말고도 여러 생명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생명이란 본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민들레도 주위의 여러 가지 동식물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서는 토끼풀, 강아지풀, 플라타너스, 소나무, 버드나무, 씨앗을 맺은 냉이 같은 식물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어떤 것들은 눈에 잘 띄게 그렸지만 어떤 것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을 만큼 꼭꼭 숨겨놓기도 했답니다. 작가 자신이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림을 그렸듯이 독자들도 자세

히 들여다보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지요. 무엇이든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심코 지나치던 것이나 평소엔 잘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워지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고, 생각해 보면 잘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좋아하거나 소중히 여기게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이 책 속에서 어떤 동물들을 만나 볼 수 있을까요? 개미 4마리, 고양이 2마리, 참새 3마리, 벌 6마리, 무당벌레 3마리, 소 7마리, 너구리 1마리, 나비 5마리, 멧토끼 1마리, 산비둘기 2마리. 어디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들

따뜻함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봄을 담은 그림책

언젠가 돌아날 뿔을 기다리며 《송아지의 봄》

고미 타로 지음 | 비룡소



일본 작가 고미 타로의 《송아지의 봄》입니다. 화면 가운데 가냘프지만 씩씩하게 네 다리로 서 있는 송아지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모양입니다. 눈이 녹으면 눈에 가려져 있던 땅이 드러나듯 송아지의 얼룩무늬도 등에 슬쩍 나타납니다. 이윽고 꽃도 피고, 바람도 불고, 태풍도 몰아칩니다. 여러 계절을 지나면서 송아지도 자라게 됩니다. 송아지의 성장은 마지막에 뿔쫂하게 돌아날 뿔로 알 수 있죠. 봄이 상징하는 시작과 성장의 모습이 이제 막 삶을 시작하는 송아지와 함께 잘 나타나는 책입니다. 엄마들은 아마도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며, 이 책의 송아지처럼 우리 아이도 계절을 잘 건디며 쭉쭉 자라나길 바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봄을 부르는 생명들의 외침 《봄이다》

정하섭 글, 윤봉선 그림 | 우주나무



“민들레는 봄이 되고 싶었어.”로 시작하는 이 책에는 봄이 되고 싶은 친구 여섯이 나옵니다. 민들레, 개구리, 반달곰, 진달래, 네발나비, 그리고 연이. 생김새도 살아가는 방식도 서로 다르지만 모두 봄이 되고 싶어 봄이 근질근질합니다. 하지만 봄을 맞이하러 나온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매서운 봄샘추위예요. 당연히 아직 봄이 아닌가 보라며 움츠러들겠지요. 그때, 그들에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신들이 바로 봄임을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봄이다!” “우리가 봄이다!” 봄이라는 사태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생명력이 곧 봄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책은 봄은 왜 봄일까, 우리에게 봄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울러 섬세한 세밀화로 봄을 부르는 생명들의 기운을 전해줍니다.

엄마도 아기도 모두가 꾸벅꾸벅 《봄이 오면》

한자영 지음 | 사계절



이 책은 정말 졸린 책입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면 소개를 하지 않겠지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봄에 찾아오는 ‘춘곤증’이란 손님을 잘 담아 냈기 때문에, 괜히 읽는 동안 눈이 감기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겨우내 옷깃을 여미느라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봄이 되면 눈이 녹듯 사르르 풀어지는 법이지요. 그동안 열 수 없었던 창을 열면, 졸음이 봄바람을 타고 함께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엄마도, 아기도, 바지런한 가넷집 아주머니도, 심지어 오리도, 무당벌레도 잠을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맙니다. 스르륵 부드럽게 녹아든 그림만 봐도 이 책에서 봄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도 내용을 따라 꾸벅꾸벅 잠을 주체 못하는 듯이 배열되어 있는 것 역시 이 책의 재미를 더해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씨앗에서 꽃으로, 다시 씨앗으로 《씨앗은 어디로 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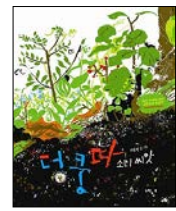
루스 브라운 지음 | 주니어RHK



이 그림책은 표지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이는 해바라기의 씨앗 10개를 손바닥에 쏟아냅니다. 봄이 되어 부드러워진 땅에 10개의 씨앗을 손가락으로 쏘옥 쏘옥 눌러 심습니다. 앗!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나 씨앗을 가져가네요. 씨앗은 9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엔 비둘기 한 마리가 나타나 씨앗을 콕콕 쪼아 먹습니다. 씨앗이 8개가 되었어요. 이런저런 사연으로 7개가 되고, 6개가 되는 동안 씨앗은 자라 떡잎이 되고, 줄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남은 씨앗 하나가 마침내 꽃으로 피어나, 다시 10개의 씨앗을 안겨주지요. 책의 내용이 자연의 위대함과 숭고함을 느끼게 줍니다.

신명 나는 생명의 탄생 《덩쿨따 소리 씨앗》

이유정 지음 | 느림보



이것도 씨앗에 관한 책입니다. 생명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씨앗은 봄이란 계절과 떼려야 뗄 수 없지요. 이 책은 씨앗의 생명력을 소리와 엮어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우리 장단 중 중모리 장단을 듣고, 그것이 담고 있는 생명 순환의 법칙을 책으로 엮었다고 말합니다. 책에서 쓰인 북의 소리는 글씨가 아닌, 바로 소리이자 그림입니다. 그 자체로도 힘이 넘치는 그림은 캘리그라피를 만나 책을 뚫고 나올 듯 강해집니다. ‘쿵’ 소리에 발을 뻗고 ‘따’ 소리에 새싹을 땅 밖으로 내미는 ‘쨌잔한’ 씨앗은 절대 ‘쨌잔하’지 않습니다. 책을 덮을 때 쫄쫄한 판소리 공연 한 판 감상한 기분이 드는 건 저뿐만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동영상(유튜브 검색)과 함께 보시면 더 실감 나게 와 닿으실 거예요.

인연을 만들어 주는 계절 《팔랑팔랑》

천유주 지음 | 이야기꽃



햇살도 반짝 빛나고, 바람도 살랑 부는 날, 나비와 아지는 각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서로 낯선 둘은 벤치 양 끝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책을 읽지요. 그러다가 나비 콧잔등에 꽃잎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움찔움찔 쿵쿵! 꽃잎을 후~ 불어 날려 보내는 나비. 그 꽃잎이 이번엔 아지 콧잔등에 내려앉네요. 아지도 후우우~ 불어 꽃잎을 날려 보냅니다. 이제 하얀 벚꽃잎은 어디로 날아가 내려앉을까요? 그리고 어떤 인연을 운명처럼 빚어낼까요? 섬세한 선으로 그린 곱디 고운 그림이 내용만큼이나 사람 마음을 간질간질하게 만듭니다. 어서 빨리 꽃피는 봄이 오고 산책도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제게도 이런 행복한 인연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꿈꾸는그림책 05

산 사람과 죽은 이가 함께 있는 마을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글·그림 이영아 | 값 14,800원



꿈교출판사

경기도 파주시 파평산로 389길 42-19 | 전화 031-953-1628 | 팩스 031-953-1626 | 이메일 bbanh@hanmail.net | 카페 cafe.daum.net/ggoom.g
꿈교출판사는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리저리 굴러 다니거나
무심한 발길에 차이거나
서랍 속에 처박힌 것들



언제 썼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어쩌면 일부러 잊은지도 모르는
작은 것들의 가치를 다시 묻습니다

이야기꽃

이야기꽃의 그림책들

01. 다 함께 놀면서 배우는 즐거운 동물요가 **안녕,나마스테!** 유태은, 11000원

02. 세상 앞에 선 어린 마음들에 전하는 격려의 메시지 **수많은 날들** 엘리슨 맥가-유태은, 10000원

03. 수영장 깊은 물속으로 떠나는 자유로운 상상 여행 **수영장** 이지현, 14800원

04. 마지막이 되어 버린 돼지들의 첫 외출 이야기 **돼지 이야기** 유리·김장성, 13500원

05. 마음껏 상상하고 색칠하며 문화재를 만나요 **이야기가 담긴 도자기** 윤진초, 8000원

06. 엄마 아빠,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 주세요! **나 때문에** 박현주, 10000원

07. 언제든 어디서든 누가 뭐래든 **민들레는 민들레** 김장성·오현경, 10000원

08. 나를 표현하는 책 만들기 워크숍 **책 만드는 책, 책 책** 소피 베니니 피에트로마치, 17500원

09. 우리가 모르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이야기 **엄마의 초상화** 유지연, 12000원

10. 호랑이도 감동한 지극한 마음 **호랑이와 효자** 백성민·김장성, 12000원

11. 두근두근, 꽃피는 봄날의 인연 만들기 **팔랑팔랑** 천유주, 12000원

12. 이상한 꿈일까, 지독한 현실일까? **이빨 사냥꾼** 조원희, 13000원
13. 대추가 저 혼자 불어지고 둥글어졌을까? **대추 한 알** 장석주·유리 12000원

14. 자연의 축복과 사람의 정성이 담긴 음식 이야기 **바람의 맛** 김유경, 14500원

15. 아픈 이들에게 조심스레 건네는 위로의 노란 빛 **노란 달이 뜰 거야** 전주영, 10000원

16. 넘어지고 깨어져도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길, 나의 꿈 **조랑말과 나** 홍그림, 12000원

17. 고립된 섬과 섬을 잇는 어린 마음들의 대화 **비밀이야** 박현주, 11000원

18. 개가 무서운 아이가 아이를 좋아하는 개를 만나면? **옆집 춘심이** 송경화, 10000원

19. 녹슨 자물쇠로 굳게 닫힌 문, 그 안에 펼쳐진 멋진 세상 이야기 **문** 이지현, 16000원

20. 우리가 잊고 사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유쾌한 생각 **중요한 문제** 조원희, 12000원

21. 사랑하는 아빠 얼굴, 어떻게 그려야 할까? **아빠 얼굴** 황K, 12000원

22.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수박이 먹고 싶으면** 김장성·유리, 16500원

23. 불안한 시대를 사는 모든 ‘선아’들의 이야기 **선아** 문인혜, 13000원

24. 이상한 집들이 모여 사는 재미난 마을 이야기 **이상한 집** 이지현, 13500원